

中韓諺語文化內涵比較研究

중화속담의 문화적임의에 대한 연구

연구

류흔 저



북경강조출판사



중화수명의 문화의미에 대한 연구

中韓諺語文化의 의미에 對한 研究

류흔 저



홍콩
조선민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韩谚语文化内涵比较研究/陆欣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5

ISBN 7-5389-1262-2

I. 中... II. 陆... III. ①汉语—谚语—研究②朝鲜语—谚语—研究 IV. ①H136.3②H219.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5)第 045272 号

书 名/ 中韩谚语文化内涵比较研究
著 者/ 陆欣
责任编辑/ 林承焕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6
字 数/ 140 千字
版 次/ 2005 年 5 月第 1 版
印 次/ 2005 年 5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7-5389-1262-2/H·56(民文)
定 价/ 15.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머리말

언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의 도구일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파매개체이며 하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한 민족의 언어를 통하여 그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보게 되고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펼치게 될 것이다.

속담은 언어와 문화의 결합체이며 역사의 유산물이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속담은 그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서 짧은 문장 속에 선인들의 지혜나 경험 등이 담겨져 있는 언어표현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속담은 민족의 전형적인 언어습관을 보여주는 표현형식의 하나이다. 언어적인 습관은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인상,개념,경험 등의 반영으로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은 각 나라, 각 민족 간의 지리 환경 속에서 역사, 문화 그리고 이로부터 형성된 심리특성,생활습관 전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속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그 나라와 민족의 살아있는 '생활사전'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한 양국은 지리상으로 동아권에 속하는 동방민족이며 문화적으로는 한자문화권에 속한다. 게다가 유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동일한 한자문화권에서 오래 동안 역사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근 반세기동안 왕래마저 중단되었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21세기에 들어와서 선린의 관계인 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속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언어형식으로서 이를 잘 모르면 미미한 의미에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십상이다.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작은 의미 차이에 의한 파급은 실로 엄청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각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중한 양국에서는 각각 중국어열풍과 한국어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담과 같은 부분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난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사실상 한국의 속담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 속담에서부터 한국 선인들이 알기 쉽게 변형시킨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겠지만 순 한국어로 이루어진 것들도 적지 않다. 또한 한국 특유의 풍속습관, 생활경험, 희로애락을 그들의 사상과 정서에 맞는 표현방법으로 창조한 것들도 많다.

예를 들면 한국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속담은 중국어로 직접 번역한다면 ‘狗屎想作藥用的話,也找不到.’, ‘躺着吃打糕.’로 중국 사람들은 이것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속담을 중국의 표현방식대로 ‘找什麼,沒什麼’, ‘老虎吃豆芽,小菜一盤.’으로 번역한다면 곧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다.

경우를 바꾸어 ‘九牛一毛.’, ‘劉備借荊州,有借無還.’을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아홉 마리 소의 털 하나’로, ‘유비가 형주를 빌린다.’로 번역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 참뜻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인의 언어습관에 맞도록 익숙한 표현으로 번역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九牛一毛.’를 ‘새 발의 피’로, ‘劉備借荊州.’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범에게 개를 빌린 격)’으로 번역하면 또한 이해하기가 쉽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같은 동방나라, 같은 한자문화권의 민족이지만 그 민족 구성원들의 언어교제, 정보교환, 의사소통, 감정전달 등 언어생활에서 더욱 원만한 교류를 위하여 서로 다른 역사문화, 사회제도,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두 나라의 속담에 대한 비교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편견을 없애주기 위하여 양국 관용표현에 대한 비교연구도 많이 필요하다.

이 책은 중한 양국의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 속담과 문화 내포까지 그 관계와 연관성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 모국어 못지 않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랑하며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인은 ‘새우 미끼로 잉어를 낚는다.’는 심정으로 이 글에 착수했으며 나아가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소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한진건(韓振乾)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필자의 꾸준

한 노력에 여러분의 애정이 함께 하여 이 책이 더욱 알찬 것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책을 펴낸다.

저자
북경언어대학
2005 년 1 월

차례

머리말 /1

제 1 장 중한 언어와 문화관계에 대하여 / 1

제 1 절 중국 언어와 한국 언어의 관계 / 1

제 2 절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 / 3

제 2 장 중한 속담의 기본 요소 / 5

제 1 절 중한 속담의 개념 / 5

1. 한국 속담의 어원 / 7

2. 중국 속담의 어원 / 10

제 2 절 중한 속담의 기본특징 / 16

1. 한국 속담의 특징 / 18

2. 중국 속담의 특징 / 21

제 3 절 중한 속담의 의미 범주 / 24

1. 속담, 諺語와 성어 / 27

2. 속담, 諺語와 관용어 / 33

3. 속담, 諺語와 격언 / 37

제 3 장 중한 속담 표현방식 및 표현수법 / 41

제 1 절 중한 속담 표현방식 / 41

1. 시가의 형식으로 된 속담 / 41

2. 운율의 형식으로 된 속담 / 51

3. 대구의 형식으로 된 속담 / 53
4. 반의적인 의미가 내포된 속담 / 55

제 2 절 중한 속담 표현법 / 56

1. 과장법 / 56
2. 비유법 / 58
3. 반복법 / 60
4. 역설법 / 61
5. 압축법 / 62
6. 성구활용법 / 63

제 4 장 중한 속담 소재의 특징 / 65

- 제 1 절 인간과 관련된 소재 / 66
- 제 2 절 인체와 관련된 소재 / 71
- 제 3 절 동물과 관련된 소재 / 73
- 제 4 절 식물과 관련된 소재 / 86
- 제 5 절 식의주와 관련된 소재 / 88
- 제 6 절 풍속습관과 관련된 소재 / 96
- 제 7 절 수자와 관련된 소재 / 98
- 제 8 절 철학사상이 내포된 소재 / 106

제 5 장 중한 속담의 의미내용과 문화적 내포 / 109

- 제 1 절 속담에 나타난 인생관 / 110
- 제 2 절 속담과 인간의 감정세계 / 122
- 제 3 절 속담과 인간교제 / 129
- 제 4 절 속담에 내포된 지혜 / 131
- 제 5 절 속담에 내포된 술수관 / 133
- 제 6 절 속담과 남존여비사상 / 136
- 제 7 절 속담과 종교관 / 137

2 중한 속담의 문화적의미에 대한 연구

제 6 장 중한 속담의 구조와 의미의 관계 / 140

제 1 절 중한 속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고찰 / 140

1. 동의동형 속담 / 140
2. 동의불동형 속담 / 144
3. 불동의불동형 속담 / 149

제 2 절 중국 독특한 형식의 속담인 혈후어 / 152

1. 중국 혈후어의 의미 / 153
2. 중국 혈후어의 독특한 형식과 구조 / 154

제 3 절 중국 혈후어와 한국 속담의 관계 / 157

1. 혈후어, 속담의 형태상의 관계 / 159
2. 혈후어, 속담 내용상의 관계 / 166

맺는 말 / 169

참고문헌 / 171

제 1 장 중한 언어와 문화관계에 대하여

제 1 절 중국 언어와 한국 언어의 관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설은 없다. 3천 종이라는 설에서부터 5천 종, 심지어 1만 종이라는 설까지 있다. 중한 양국은 지리상에서 볼 때에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선린이고 역사상에서 볼 때에 같은 동방나라이고 언어,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로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한자의 유입과 유교사상의 전파로 중한 양국은 언어와 문화에서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언어의 계통론으로 볼 때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한다. 즉 중국어는 중국 티베트 어족이고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마찬가지로 한자와 한자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언어어휘는 고유어휘와 한자어휘로 이루고 지금의 언어생활에서도 한자어휘는 70%를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한자와 한자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물론 언어생활의 정책을 볼 때 한국에서 한참 ‘한글전용’ 체계를 운영했지만 그 폐단은 이만저만 아니다. 오늘날 한국 신문이나 교과서, 잡지 등에서

한자 그리고 한자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한국의 법률 문서, 족보, 비문 등을 작성할 때 한자어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중국 언어와 한국 언어는 계통론에서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고 문법과 어순도 전혀 다르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의 문자 즉 한글의 창제도 중국 언어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제했다. 한글은 1444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되었고 어음체계에서 3분법을 사용하였다. 즉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다. 훈민정음의 초성은 중국어 성운학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었고 중국의 36개 자모에서 당시 한국어의 음운에 맞도록 23개 자모의 체계를 고안하였다. 중성은 천, 지, 인, 삼재의 모양으로 기본자를 창제하였다. 한글의 중성은 중국의 음운학의 운모에서, 그러나 독창적으로 중성과 종성을 분석한 것이며 동시에 한국 중세 국어의 7개 모음 체계를 바로 귀납한 것이다. 한글 창조와 반대는 조선민족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문자생활을 한 단계로 중지시키고 일반 서민들이 자기 나라 글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한국어 발음과 중국어의 발음이 다르지만 실제로 지금의 한국어 어휘 중에 중국 고대 한자음과 매우 비슷한 것이 많다. 그 이유는 한국의 언어형성 단계에는 한자를 차용하는 당시에 글자만 빌려 쓴 것이 아니고 음, 훈까지 빌려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어와 중국어는 어종계층이 다르지만 어휘와 발음 면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가 많다.

제 2 절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

한국 문화의 기원과 발전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사람들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 그 중에는 우선적인 교류도 있었고 국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있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이 두 나라보다 더 이상 가까운 나라가 없다. 지금의 한국 사람은 또한 동이족(東夷族)의 후손이다. 동이족의 선조들은 주로 중국의 동부 바다와 가까운 곳이나 중국 양자강의 북쪽 그리고 지금의 조선반도에서 생활하였다. 한국의 선조들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문화는 점차 중국 문화와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한국의 철로 만든 생산도와 철로 만든 무기의 기술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철학 및 문화 등 방면에서도 한국의 발전은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중한 양국은 같은 동방나라 인도에서 온 불교를 자기 나라의 주 종교로 받아들이고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에 유교사상의 유입과 한국에서의 발전은 더욱더 중한 양국 국민들의 비슷한 도덕관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많이 남았고 옛날의 중국 사회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문학측면에서 볼 때 당시 중국 문학의 대량 유입이 한국 언어, 문학, 심지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었다. 고려왕조시대 성숙한 단계에 발전해 온 한시(漢詩)도 한문으로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문학을 잘 이해해야만 지을 수 있었다. 즉 한시는 중문으로 쓰고 중문의 규칙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다. 단지 시를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한문(漢文)의 사용은 19세기 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중한 양국은 수천 년의 이웃나라로 생활하면서 역사상 밀접한 왕래가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 2 차세계대전으로 형성된 국제정치정세의 제약을 받아서 양국 간 근 반세기 동안 왕래가 중단되었다. 두 나라의 정보교류도 최소의 범위에서 국한되었다. 서양 사람들이 한 백년 전부터 한국을 ‘은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웃으로 살고있는 중국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1992년 8월에 중한 양국이 수교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학’ 그리고 한국에서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서 두 나라는 짧은 시간에 서로 잘 알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중의 중요한 원인은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2 장 중한 속담의 기본 요소

제 1 절 중한 속담의 개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 속담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정신적인 유산이며 지식의 축적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회로애락의 감정과 풍부한 생활경험 등이 쌓이고 또 쌓여 감에 따라 그 유산은 늘어간다. 나아가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오를수록 그 유산의 기반이 굳건하여 자손만대에 널리 전승될 것이다.

한편,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은 고유의 생활습관과 그 나라의 문화풍습을 가지는 동시에 타민족들과의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중한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인접한 나라이므로 그 문화의 바탕이 유사하고 생활습관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더군다나 두 나라 다 동아시아문화권(東亞漢字文化圈)에 속한 나라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면서도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담는다는 속담에서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면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 밖의 여러 현실에서도 공통성과 유사성이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발전과 인류정신, 혹은 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대륙문화와 소통하